

“차별화된 교육으로 전문역량 계발한다”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제공 포항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포항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역의 12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과 함께 학습공동체를 꾸리고, 전문가를 초빙해 강좌를 진행했다.

얼마 전부터 ‘복지’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복지의 최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또한 주목받는 직업이 됐다. 사회복지사는 노인과 여성·장애인·청소년·다문화가족 등의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한다. 특히 소외와 고독감을 호소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봉사정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일반 직장인보다는 성직자에 가까운 특성도 지녔다.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복지제도가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사가 속한 복지기관의 형태와 역할도 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려면 사회복지사 스스로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포항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전상규)은 2015년과 2016년,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포항지역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공동체 및 전문가 초빙 강좌 프로그램인 ‘SC(Self-directed learning Community) Academy’를 진행했다. 사회복지사 개인의 역량강화는 조직의 역량강화로 이어진다는 믿음에서다.

1차년도에는 99명의 사회복지 실무자를 대상으로 10개의 학습공동체를 만들어 1년 동안 146회의 학습공동체를 진행했다. 학습공동체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포스커’, 전산능력 향상을 위한 ‘ITQ OA Master’, 사례관리 실무자

들의 네트워크인 ‘베테랑’, 지적장애인의 카페 직무 지도를 위한 ‘Social 원두’ 등이었다. 아울러 김유진 교수(경북대 사회복지학과), 원유슬 야고보 신부(포항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등의 전문가를 초빙, 총 16회의 특강을 진행했다.

2차년도에는 2015년 사업을 확대, 발전시켰다. 2015년 사업이 실무자의 역량강화 및 자기주도적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췄다면 2016년은 교육 대상을 기관장까지 확대했고, 외부 개방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김민구 포항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은 “포항에도 복지기관이 여럿 있는데 보수교육 외에는 차별화된 교육이 부족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자들이 전문역량을 계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에 참가한 유금희 사회복지사(포항장애인공동생활가정)는 “이렇게 수준 높은 학습공동체가 진행되어 뿌듯하다. 더 많은 사회복지사가 참여하도록 아산재단이 한 번 더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단체들이 있습니다. 아산재단은 1977년부터 4,370여 사회복지단체에 450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산재단은 사회복지단체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독거노인, 저소득계층의 자녀, 외국인근로자, 노숙인, 미혼모, 폭력피해여성, 새터민, 다문화가족 등 외롭고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